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에 추정된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감소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뉴욕주는 2020년 말까지 "전염병 종식(End the Epidemic, ETE)"을 순조롭게 진행

"전염병 종식(Ending the Epidemic)" 정상회담이 올버니에서 12월 3일과 4일에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과 함께 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에이즈 바이러스 발병률, 즉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추정 발생 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계속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2020년 말까지 Cuomo 주지사의 "전염병 종식(Ending the Epidemi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의 적극적인 행동이 주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2018년의 데이터는 새로 진단받은 뉴욕 주민 중 82%가 새로 진단받은 지 30일 이내에 치료와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 종식(End the Epidemic)'을 위한 이 적극적이고 역사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에이즈 바이러스 또는 에이즈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추정 수준과 사람들을 더 빨리 치료와 연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한 다른 주요 지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동안, 또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삶을 앗아간 전염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진전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주지사의 "전염병 종식(Ending the Epidemic)" 이니셔티브는 2014년에 발표되어, 2020년 말까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을 현저하게 줄이고 뉴욕주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의 수를 최초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종식(Ending the Epidemic)"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에이즈의 절대적인 제거, 곧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에이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와 미래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꼭선 구부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의 연간 감염자 수를 해당 해에 에이즈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 진단 및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추정치가 최소치를 기록
새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에 주 전체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 발생률은 사상 최저인 2,019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발생률은
전염병 종식(ETE)이 시작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동안 40%
감소했습니다. 광범위한 노력으로 인해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2018년의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 진단도 사상
최저인 2,481건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11% 하락하고 전염병 종식(ETE)
시작 이후 28% 감소한 것입니다. 2000년에 의무적인 에이즈 바이러스 보고가 시작된
이후 11% 감소는 1년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개인을 치료와 연결하는 데 성공적인 전염병 종식(ETE)

전염병 종식(ETE) 이니셔티브의 주 목표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을 치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전염병 종식(ETE)를 통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연간 평균 사망자
수는 전염병 종식(ETE) 이전과 비교하여 전염병 종식(ETE) 기간 동안 13% 더
낮습니다. 또한, 2018년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 진단된 뉴욕 주민 중 82%가 새로 진단된
지 30일 이내에 치료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의료 접근과 결과를 개선하고 있으며, 84%가 일정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바이러스 억제가 계속되거나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억제된 바이러스 부하를 가진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성적으로 전염시킬 수 없습니다.
치료 중인 사람들의 바이러스성 억제는 2018년에 89%로 증가했으며, 2017보다 2%
포인트 높았습니다.

약물치료 가능

뉴욕은 위험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뉴욕은 미국 최초로 노출 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 인식
주간(Awareness Week) 선언을 실시한 주였습니다. 2018년의 자료에 따르면 약
32,000명의 뉴욕 주민들이 노출 전 예방요법(PReP)을 받았으며, 이는 2017년부터 32%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노출 전 예방요법(PReP)을 받는 개인이
많았습니다.

뉴욕주의 광범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전염병 종식(ETE) 정상회의

뉴욕주의 제4회 연례 "전염병 종식(ETE) 정상회의"는 12월 3일과 4일 올버니 엠포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과 함께 개최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모멘텀 유지, 비전
확대(Maintaining the Momentum, Expanding the Vision)"입니다. 뉴욕주 최고의 전염병

종식(ETE) 행사로 올해 정상회담은 6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은 전염병 종식(ETE)에 중점을 둔 주 전역의 공급자 및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작업과 최신 전염병 종식(ETE) 측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선보일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Health) 커미셔너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진전은 이 주와 지역사회의 노력과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새로운 진단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에이즈 환자의 건강도 향상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2014년 6월 29일, 2020년까지 뉴욕주의 "전염병 종식"을 위한
3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에이즈 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의료 서비스에 연결하며, 에이즈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의료 서비스에 연결 및
유지하여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를 최대화하는 치료를 받게 하며,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출전 예방요법(PrEP)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주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간 2,0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22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